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난다

-충남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으로 대학 발전 전기
NURI, BK21로 제2의 도약 발판 마련

충남대학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난다”

충남대학교가 국내 최고의 R&D 시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 등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다.

④ 대덕R&D특구의 유일한 종합대학, 충남대는 대덕밸리의 스탠포드

충남대학교는 국내 어느 대학도 흉내 낼 수 없는 천혜의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 미국에 실리 콘벨리와 스탠포드대학교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대덕R&D특구와 충남대학교가 있다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이다.

대덕R&D특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 질 연구개발특구의 본산이다. 대덕R&D특구는 정부출연기관 21개, 지적재산권의 10%, 박사급 연구 인력의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기업체 3,000개, 30조 원 매출을 실현하는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덕R&D특구 가운데서도 충남대는 유일한 종합대학교로서 최고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국



에서 최초로 1987년 대덕연구단지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겸임교수제도를 채택해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적 성과를 교육 현장과 연결시키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④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 대학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도약

충남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대와 불과 10여 분 떨어진 곳에 조성 중이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1세기 들어 세계 최초로 계획되는 대규모 도시로 정부의 행정 기능은 물론, 교육, 연구, 경제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각 40개, 중·고등학교가 20개, 대학 2개가 들어서게 되며 대덕R&D특구와의 연계를 통한 연구소와 첨단 지식기반 산업단지, 의료복지단지, 문화국제교류단지 등이 배치되는 완벽하게 계획된 최고의 행정도시가 설립된다.

이렇게 되면 수백 년간 지속돼 왔던 수도권 중심의 국가 패러다임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뀌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충남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대학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학을 입지시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동북아의 허브 대학으로 힘찬 비상을 하고 있다.



⑤ NURI 사업, 2단계 BK21 사업 선정으로 장기 도약 발판 마련

여기에 충남대는 NURI 사업과 2단계 BK21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에 속속 선정되면서 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 4월 26일, 2단계 BK21 사업에 과학기술 7개, 전문서비스 1개, 핵심 분야 8개 등 총 15개 사업이 대거 선정되었다. 순수 국고지원액만 연간 62억 원이며, 앞으로 7년간 총 434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5월 18일에는 NURI 사업에 '대형' 사업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4년간 149억 8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충남대는 NURI 사업에 총 6개 사업단, 575억 3천만 원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대학의 장기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2단계 BK21 사업에 대거 선정됨에 따라 충남대는 고급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학생이 아닌 석사, 박사 과정의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 2단계 BK21

사업의 선정으로 대상 학과의 교수는 56.8%가 참여하고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61.2%가 참여해 연구 지원을 받게 된다.

충남대 NURI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6,911명(학·석·박사과정 포함)으로, 학생들의 3분의 1 가량이 NURI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각종 장학사업과 어학연수, 어학능력, 학술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각 전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학과는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100%에 가까운 충원율을 보임에 따라 사업시행 1~2년에 불과하지만 NURI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BK21 사업과 NURI 사업은 대전시를 비롯한 대덕연구단지의 국책연구기관, 벤처기업 등과의 활발한 산·학·연 연계를 통해 학습과 현장이 최적의 조합을 이룬 환경에서의 인력 양성이 가능해 졌다. 특히, 충남대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IT, BT, NT 분야의 고른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 특성화 전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각각의 사업단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 전략산업과 국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관련 분야의 학문적 성장은 물론,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④ 정부대전청사, 3군 본부, 정부출연기관 등 학-연-산-관-군 협력 체계 구축

이 밖에도 정부대전청사, 3군 본부, 3군 대학, 계룡대,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대전이라는 사통팔달의 도시 특성에 맞춰 충남대는 이러한 주체들과 학-연-산-관-군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교육 여건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충남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대학이 천혜의 교육입지 환경에 맞춰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했던 것과 같이 대덕밸리의 유일한 종합대학,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선도대학으로서의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연구단지 겸임교수제 도입

“연구단지 과학자로부터 직접 수업 받아요”

충남대학교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덕연구단지의 과학자들을 겸임교수로 초빙해 직접 강의를 함으로써 이공계 계열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④ 대한민국 최초 겸임교수제 채택, 20년간의 노하우 축적

충남대가 대덕연구단지 과학자들을 겸임교수로 위촉한 것은 1987년 7월, 국내 최초로 겸임교수제를 도입한 것도 주의를 끌만한 일이었지만 대한민국 이 · 공계의 최고 브레인으로 불리는 대덕연구단지의 과학자들과의 협

약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로 인해 충남대는 30년간 대한민국의 과학을 이끌어 온 대덕연구단지의 노하우를 대학의 학문에 집적해 학문적 성장은 물론, 교육에 현장성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대덕연구단지 과학자들과 협약을 맺어 겸임교수 제도를 채택한 이후 약 20년간의 노하우 덕에 충남대는 대덕연구단지와의 학-연-산을 활발하게 진행해 학문적 성장은 물론 대학의 인력과 기술을 연구단지에 제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해 왔다.



현재, 충남대에는 140여 명의 겸임교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과학자들로 시작한 겸임교수제는 이·공·의학 계열은 물론 최근에는 경영·경제, 행정, 사회, 군사, 교육, 어문학 등 그 분야도 매우 다양해졌다.

지역의 자긍심에서, 세계 속의 명문대로 비상!



양현수(충남대학교 총장)

개교 54주년을 자랑하는 충남대학교는 창의·개발·봉사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각 학문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대사회는 무한경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변화와 변혁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와 좌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대학의 역할과 위치는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며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충남대학교는 재학생들에게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신지식인을 양성할 것이다.

특히 충남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여건상 축복 받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덕R&D특구로 지정된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정부대전청사, 3군 본부 등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조만간 인근에 조성되면 대한민국의 핵심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

대학의 연구 역량과 인력, 지식, 기술이 구체적으로 꽃을 피우는 곳은 바로 지역 사회이고, 지역 사회는 대학으로부터 발전의 동력을 얻어 상생하게 되듯이 이제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충남대학교는 새로운 변혁과 개혁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이다.

충남대학교는 개교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인재를 길러왔다. 충남대학교 13만여 동문들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초석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영광의 역사를 발판삼아 자율과 책임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충남대학교를 지역 사회의 자랑이자 자긍심의 원천으로 만들고자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대한민국 구성원 그리고 세계인들이 다시 보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충남대학교가 우뚝 서는 그날까지 교직원 및 학생 모두와 함께 힘찬 전진을 준비할 것이다.

④ 대덕밸리 300개 업체와 협약 체결, 교육+기술의 완벽한 조합



충남대학교는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연합회인 (사)대덕밸리벤처연합회와도 8월말경 협약을 맺을 예정이어서 교육과 기술의 결합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는 30년간 성장한 대덕연구단지를 배경으로 신기술을 산업에 응용, 상용화한 벤처기업들의 연합체로 약 300개의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벤처 관련 단체이다. 충남대는 대덕밸리벤처연합회와의 협약 체결로 인해 대학의 학문과 벤처기업의 현장 기술을 접목해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충남대는 약 20년 전부터 대덕연구단지의 기술과 인재를 대학의 교육과 접목시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연구 분야는 물론 벤처기업 등 산업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겸임교수로 활동하거나 이들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직접 수업을 받거나 현장 학습을 통해 충남대는 교육과 연구 분야, 산업이 융합돼 살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명목상의 산-학-연 협력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현장의 노하우를 교육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대덕R&D특구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서 천혜의 교육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덕R&D특구에 위치, 교육과 현장 접목이 배경

충남대학교 이것이 “전국 최고”



④ 로보콘 3연패, 무인항공체 석권 등 다양한 분야 ‘최고’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방면에서 그 전문성과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충남대인들의 저력을 살펴본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 대전인 로보콘 코리아를 3연패 한 기계설계공학과와 ‘치우천왕’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NO.1’으로 꼽힌다. ‘치우천왕’은 로보콘 코리아 대회에서 2

회 대회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연속 우승을 차지했으며 아시아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실력을 과시했다.

또, 무인항공체 비행대회에서는 1등상과 2등상을 휩쓸어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4회 한국 로봇항공기 대회'에서 전기공학과의 'Air Gate' 팀과 '飛틀S' 팀이 각각 대상과 금상을 차지했으며 '飛틀S' 팀은 2003년에 이어 3년 연속 금상을 거머쥐어 무인항공체 대회에서 최강자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창의적 공학설계 대회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물론, 장애인을 배려한 눈높이 발명으로 최고상을 거머쥐어 역시 충남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메카트로닉스공학과 'DAL' 팀은 '제4회 창의적 공학설계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DAL' 팀은 '착탈식 다기능 휠체어'를 제작해 수천만 원이 넘는 높낮이 조절 전동 휠체어를 수십만 원 대에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체육 부문에서도 충남대 학생들의 실력은 눈이 부실 정도이다. 대한민국 단거리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전덕형 선수(체육교육 4학년)는 10초 51로 현재 100m 국내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1학년 임재열 선수가 10초 63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86회 전국체전에서는 12개 종목의 육상 단거리에서 11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국내 육상 단거리의 최강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④ 학생들이 65만 달러 수출 성사, 취업 지원도 최우수

연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배운 교육을 현장에 응용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학생들의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TI사업단은(Trade Incubator) 2005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최우수 사업단에 선정되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웬만한 무역업체의 실적에 버금가는 65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거둬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대덕R&D특구의 기업들과의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 전망이 더더욱 밝다.



또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혁신인력개발원은 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업 지원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2억 7천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전국 87개 대학 가운데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CNU 혁신인력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해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여성들의 실력도 뛰어나 올해 여군사관에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대학 가운데 최고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교육부가 선정하는 양성평등 조치 대학에 우수대학으로 뽑혀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 확대 및 능력증진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이 밖에도 에너지 전공경시대회 1위, 로봇 위 2위, 전공공학 창의설계 3위, 웨어러블 경진대회 반도체설계자산연구센터상 수상, 토익넷 3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대인'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충남대 학생들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체계화된 교육과 철저한 현장의 경험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특히, 대덕R&D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으로 인해 학생들의 연구 성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전에 응용하고 나아가 경제력을 갖춘 생산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대학보다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일리노이공대, 뉴욕주립대, 산둥대학 등 5개 대학 운영
복수학위제로 학위 2개 따기**

2년은 충남대, 2년은 외국 유명 대학, 졸업장은 2개 취득

충남대학교는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 블룸필드대학, 그리고 중국 산둥대학, 연변대학 등 총 5개 대학과 2+2 복수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봄 학기부터 조영목씨를 비롯해 2명의 학생이 일리노이공과대학에서 복수학위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가을 학기에는 안승규씨를 비롯한 2명이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에서 공부할 예정이며 산둥대학 1명, 연변대학 29명 등이 복수학위제에 참여한다.

복수학위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충남대에서 2년을 수학한 뒤 남은 2년을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공부하고 양 대학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게 된다.

또한 충남대는 27개 국가 94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어 학생 및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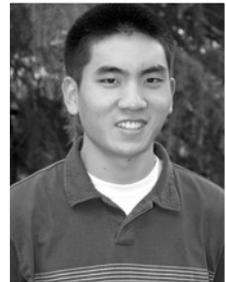
수, 교직원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환학생, 장·단기 해외 연수, 해외 봉사 활동, 학술교류협정, 해외 배낭여행, 인턴십 등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외국 대학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길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

“세계 학생들과 친구하고 있어요”

- 수학은 우리 학생들이 잘하지만 다양하게 배울 점 많아

조영목(기계공학과 4학년)

충남대 기계공학과 4학년 조영목씨는 지난 한 학기를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에서 세계의 여러 학생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정신없이 보냈다. 조 씨는 지난 봄 학기부터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의 기계공학과에 2+2 복수학위제에 참여하고 있다.



충남대와 일리노이공대의 학위를 딸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외국에서 세계의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복수학위제를 선택했다.

유학 생활의 어려움은 역시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다. 하지만 조 씨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리노이공대에는 여러 국가의 유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외로울 시간이 없었을 정도였다. 언어 부분의 문제도 큰 어려움은 아니었으며 학기 초반 착실하게 수업을 듣고 외국 생활의 적응을 위해 노력해 지금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운동을 좋아해서 미국 공통어인 축구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여러 국가, 민족이 섞여 있어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 매주 주어지는 과제와 3번의 중간고사, 1번의 기말고사를 거치며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유학 생활의 제 맛을 보고 있다. 앞으로의 1년 반에 대한 설렘이 커지는 이유다.

“한국 학생들은 기초학문에 강하죠. 과학이나 수학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교육을 받아 발표력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조 씨가 말하는 2+2 복수학위제의 가장 큰 매력은 양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미국이나 한국의 자동차 관련 업계에 진출하고 싶은 자신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수학위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미국이나 국내 대학원 과정에 진출하는 것에 유리함을 밝히며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학기 동안 적응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학생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기울여서 충남대인의 저력을 보여줄 각오입니다.”